

한국 OCIO 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

류두원*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산을 누가 관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결정할 일이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개인이 자산관리자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 외부에서 가타부타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최근에 많은 기관이 OCIO(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OCIO)¹⁾ 즉, 외부 전문기관에 자산운용을 맡기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은 한국투자증권, 산재보험기금은 삼성자산운용으로 주간운용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고용보험기금은 5조 8,188억 원, 산재보험기금은 22조 3,654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이다.²⁾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기존 자산운용체계는 11개사에 달하는 증권사에 자금을 분산하여 위탁 운영하였으나, 효율적 자산운용 등을 위하여 현재의 전담자산운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적절한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하나의 주간OCIO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기금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주간 OCIO가 하위 OCIO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적어도 두 개 이상을 선정하여 경쟁력을 재고시키는 한편, 위험관리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22년 8월 기준 국내 OCIO 시장의 규모는 130조로 추산되는데,³⁾ 소수의 OCIO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과점 시장 형태가 지속되면 시장 경쟁이 저하되어 OCIO 시장 전체의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정부 부처, 공기업 등이 OCIO를 이용할 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기금 규모에 따라 최소 선정에서는 여러 개의 주간OCIO를 선정하고, 중간보고

논문접수일 : 2022년 11월 24일 논문수정일 : 2022년 12월 12일 논문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15일
본고는 류두원 교수가 작성한 논문과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고 준용하였다.

*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E-mail: lyucreon@kookmin.ac.kr

1) 본 논고에서는 서술과 가독성을 위하여 OCIO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모두 OCIO로 칭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3) 남재우(2022)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22 'OCIO 시장 성장 가능성과 완전위임 확대 필요성.'

(점검)를 통하여 실적이 가장 좋지 않은 OCIO를 우수한 잠재력을 갖춘 OCIO가 대체하도록 하거나, 가장 우수한 OCIO로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간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기금은 새로운 선정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주간OCIO를 선정하여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OCIO들은 앞에서 제시한 제한을 받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OCIO가 계열사를 운용하여 제한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전체 기금의 특정 비율을 중소 OCIO가 운용하도록 배정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 기금의 특성상 적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자금이므로, 이러한 자금들을 중소 OCIO에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확한 수치와 비율 등은 심도 있는 논의와 각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고, 업계와 정부기관의 협조와 협의를 통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다. (1) 최초 선정시 각 기금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을 따른다. 1조 이하: 1개 이상의 주간OCIO, 1조 초과 10조 이하: 최소 2개의 주간OCIO, 10조 초과: 최소 3개 이상의 주간OCIO. 또한 복수의 주간OCIO를 선정하는 경우 중간보고를 통하여 경우에 따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OCIO를 제외시키고 새로운 OCIO를 선정할 수 있다. (2) 새롭게 조성된 기금은 새로운 주간OCIO를 선정해야 하며, 5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기존의 기금을 담당했던 우수 주간OCIO의 경우에는 새롭게 조성된 기금 일부의 주간OCIO를 겸할 수 있으며, 기존 기금을 운용하다가 기준에 미달하여 제외된 OCIO는 운용기금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셋째, 특수 관계에 있는 OCIO는 (1), (2)의 제한을 받는다. 편법을 사용하여 (1), (2)의 제한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4) 1조를 초과하는 기금이 OCIO를 통해 운용되는 경우, 0.1% 이상의 금액을 소규모 OCIO 10개 이상이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선정된 주간OCIO가 지정 가능).

기금관리주체나 기금사업 주관 부처는 당연히 경험이 많고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본 주간OCIO를 선정하기를 원할 것이다. 마치, 기업에서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 바로 가용한 인력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하고, 환자가 병원에서 경험이 부족한 수련의에게 진료를 받기보다는 교수에게 진료를 받기를 원하듯이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과 선호는 모두 다 경력직만을 원하다 보니, 신입 인력이 경험을 쌓을 수가 없어서 버리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대학생 인턴이라는 핑계로 급여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고마워해야 하고, 그나마도 여러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하여 취업을 위한 인턴선발 전쟁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기금은 규모도 그 성격도, 개인의 자금과는 다르며,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최근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투자의 흐름에 맞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은 대형 OCIO에 맡김과 동시에 소규모 OCIO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OCIO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규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제시된다면, 국내 OCIO 시장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대형OCIO와 신진OCIO, 그리고 새롭게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후발주자들까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OCIO 시장은 규모나 기간을 고려하면,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소규모 신진 OCIO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와 규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규정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